

공정위,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 발표

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최근 한보, 삼미 등 대규모기업집단의 연이은 부도와 오는 '98년 3월 31일로 다가온 출자 및 보증한도 초과분의 경과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대규모기업집단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대규모기업집단의 이와 같은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은 세계화의 급진전,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하에서는 기업체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각과 공정거래법상 출자 및 채무보증한도 초과분을 경과기간 내에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조사결과 구조조정은 적자 및 한계사업 정리, 계열사 통폐합,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는 한편, 첨단·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출 등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. 경영혁신은 임금동결, 조직의 슬림(slim)화, 생산성 10% 향상, 비용의 10% 절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

기업집단별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주요 특성을 보면, 기업집단별 추진전략이나 출자 여유, 재무구조 등의 여건 차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정도나 양태에 차이가 있는데,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출자여유가 있는 상위 15대 그룹은 반도체, 정보

통신,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 유망사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출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거나 첨단 기술의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등 사업구조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. 또한 과거와 달리 불요불급한 사업규모의 축소나 계열사의 통폐합, 원가절감 등 과감한 감량경영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구조조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.

반면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출자 등의 해소 부담이 큰 15대 이하의 그룹들은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신규 유망사업으로의 진출보다는 적자 및 한계사업의 정리나 계열사간 유사업종의 통폐합, 중소기업형 사업의 이양 등을 통한 출자 및 채무보증 한도초과분의 해소 및 재무구조의 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. 특히 기아그룹 등 최근 부도위험을 겪은 그룹이나 올해 새롭게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아남, 거평, 신호, 미원 등 4개 그룹은 대폭적인 계열사 감축을 통한 주력업종의 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

이러한 대규모기업집단들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은 출자 및 채무보증한도 초과분의 해소시점이 내년 3월로 가까워 오에 따라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, 그 결과 내년 하반기 경부터는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, 또한 30대 기업집단의 이러한 노력은 기타 기업집단에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◆ 기업집단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 ◆

집단명	구조조정	경영혁신 등
현 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기술개발 투자 10% 증대 추진 -친족독립계열회사 계열분리 · 울산화학 등 7개사(97. 10. 1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생산실명제 도입 -Ten Ten 운동 추진 · 생산성 향상 10% · 원가절감 10% · 출장비, 접대비 등 절감 10% -임원급여 동결, 능력중시형 임금체계 정립
삼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2000년까지 투자규모 축소(당초 70조→40조) -반도체의 TFT LCD 등 전략사업육성 및 신규 유망사업 발굴 -한계사업 및 적자사업 정리 · 95년(40개 품목, 9,500억원) · 96년(30개 품목, 2,000억원) -친족독립경영회사 계열분리(97. 4. 16) · 제일제당, 신세계 등 21개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향후 30년간 경비 30% 절감 (3·30운동)
엘 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신규유망사업 진출 · 2000년까지 정보통신, 차세대반도체 등에 23조 투자 -한계사업정지('96년 실적) · LG전자 등 14개사(6,300억원 상당) -중소기업에 사업 이양 · LG화학(액화탄산, 광택제 제조), LG정유(윤활유 제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그룹 회장실 감축(100명) -부·과제를 大팀제로 전환 계획 -전 계열사 연봉제 도입 추진 (현재 LG텔레콤 실시중)
대 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대우, 한독중건 흡수합병('97. 7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제2관리혁명('97. 4~2000) 선언 · 연봉제등 신규제도 도입검토 · 재무구조 개선, 해외사업 Network 구성 (지역본사 설립) 등 -임금동결 및 상여금 50% 반납(대우전자)
선 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유사업중 계열사 통폐합 · 흥국상사, 삼일사 등 7개사 합병완료(97. 9. 30) -한계사업 정리 · 유공에라스트머, 유공몬텔 청산 계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관리부별 Slim화 추진 계획 · 계열사별로 임원 및 사무직 감축 계획 -경쟁열위사업부문의 인력을 신규사업부문에 재배치 계획

집단명	구조조정	경영혁신 등
쌍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그룹 계열사 합병·매각 ·오주개발 등 4개사 합병('97. 4. 30) ·동성고속관광 청산 진행중 -쌍용양회 주요자산 처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계열사 임직원 임금동결 결의 -일반관리비 20% 절감(쌍용) -제로베이스 예산 편성(쌍용정유)
한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고부가가치 선(船) 건조, 다목적 헬기개발 등 추진계획 -LPG선 건조,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 -유사업종 통폐합 ·대한중운 육운부문 한진 양도('96. 6) ·한국항공의 한진지리정보 합병('96. 6) 및 화물터미널의 여행개발, 항공종합 서비스 합병('96. 6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部課制를 大팀제로 전환 -생산성 20% 향상 운동 추진 -그룹 재무구조 개선 적극 추진
기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계열사 축소 ·28개→5개로 축소 계획 ·기아자동차(주) 등 자동차 부문의 5개사만 유지 ·(주)기산 등 7개사 계열제외 신청 -부동산 매각 계획(31,036억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사외이사제 추진 -윤리사무국 설치 운영
한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반도체·2차전지 등 21세기 첨단산업 진출 -계열분리 : 빙그레('97년내) -한계사업 정리 ·윤희유 사업 철수 -계열사 합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구매원가, 물류비 등 경비 10% 절감 -전 계열사의 부장급 이상 연봉제 실시 중
롯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정보통신 등 첨단기술개발 중점 추진 -롯데로지스틱스 신설('96. 12) -롯데리아, 코리아세븐 합병('97. 5. 31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생산성 10% 향상운동 추진 -비용 10% 절감 추진 계획 ·유사내부조직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 예정
금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정보통신,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진출 모색 -주력업종(타이어, 화학)의 해외진출 모색 -지방소재 소규모 건설사 합병 및 비주력 중소기업종 등 한계사업 정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생산성 10% 향상, 비용 5% 절감 -전계열사 임직원 임금 동결 -R&D부문 지속투자(매출액의 3%이상) -하수리장치, 매연여과장치 등 환경 부문 신기술 개발 및 투자
한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적자 및 경쟁력 상실 품목 사업 중단 -투자 축소, 채고 감축, 매출채권 감축 -유희부동산 처분, 불용자산 및 보유주식 매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조직의 Flat화, Slim화, 인력정비 및 재배치 -국내 및 해외조직 통폐합 -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

집단명	구조조정	경영혁신 등
동 아	-물류기지 신설, 물류체계 확립 및 첨단통신사업 강화 -민자발전, SOC사업 적극 참여	-능력급 연봉제 단계적 도입 -BASIC 3-4 운동 전개
두 산	-단순지분참여 합작법인 지분 매각 -부동산매각 등 3,541억원	-조직 Slim화(907Post→413) -96년 초부터 대단위팀제 실시 -사무실임금 14%(1천여명) 감축
대 립	-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투자 확대	-전문경영인 체제 도입('97. 7. 1) -활동기준 경영관리시스템 도입 -통합정보시스템 도입
한 술	-선택과 집중전략에 의거 한계·적자사업 정리 · 한술개발, 한술임산 흡수합병 · 한술판지의 한술무역 영업양수 추진중	-Jump21(21C도약 운동) · 세전이익 5% 향상, 세계적 경쟁력 확보 -총액임금동결 실시
효 성	-석유화학 관련사업의 수직계열화	-벤처조직 등 조직구조 구획 추진 -경비 10% 절감운동 지속 추진 -연봉제 전면 실시 -사내도산제 실시 중
동국제강	-구체적 계획 없음	-경비절감 추진
진 로	-계열사 축소 -사업부문 매각 -부동산 매각계획(1조2천억원)	-집중근무시간제 운영
코오롱	-중소기업형 사업 이양(96년) · 코오롱의 연사제작용공정을 한국코드에 이양	-총액임금동결 · 관리자급 임금 동결 및 임원급여 10% 반 납 -관리부문간 인력을 생산·경영부문으로 전 진배치
고 합	-R&D, 기술개발투자 확대 및 불요불급한 투자 억제 -계열사 축소 -한계사업의 축소 및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양 검토	-경비절감 -조직개편 · 유사조직 통폐합 및 조직 Slim화 (여유인력 전진배치) -경영혁신운동 · 직급별, 공장별, 업무별 Work shop 실시 (연중교육)

집단명	구조조정	경영혁신 등
동 부	-동부건설 등 8개사 합병 -한계사업 정리 -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(4,300억원)	-경상경비 10% 절감
동 양	-금융계열사간 중복업무 통폐합 등 리스트럭처링 추진 계획	-총액임금 동결 -건축예산 편성
해 태	-종합식품·유통전문그룹으로 사업재구조 추진 · 15개 계열사를 주력 3개사(해태제과, 해태음료, 해태유통)으로 통폐합 계획 -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(3,800억원)	-기업공개 추진(해태음료: '98년 1/4분기) -인력감축 등 비용절감 · 600명 감축(586억원) · 경비절감(1,950억원)
뉴 코 아	-유사영업종 합병 추진(18개→5개) · 뉴코아백화점 등 12개사 · 뉴코아본점 및 김스클럽 매각 추진	-합병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중복된 조직 · 인력 축소
아 남	-사업부문별 소그룹화 · 반도체관련 사업부문 통폐합 : 21개 계열사→5개 부문 16개 계열사로 통폐합 -계열사 합병 · 아남건설의 한용양행 합병('97. 9)	-임원임금 동결
거 평	-반도체 조립가공 확대 -반도체 Test분야 진출(미국 ATE 인터내셔널社 인수) -한계사업 정리: 수퍼사업 정리 (임대사업으로 전환: 거평유통) -계열사 통폐합 -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(1,000억원 추정)	-KP-365(원가절감운동: 경비 20% 절감) 운동 -MM(My Machine) 운동 -그룹기술상제도 도입
미 원	-유사영위업종 합병 예정 · 대상공업/미원, 화영식품/베스트푸드 미원·청정식품	-원재료 총합구매 및 부동산 통합운영
신 호	-계열사 통폐합 추진 · 신호상사, 신호종합개발 합병 진행중 · 신호제지, 신호페이퍼, 일성제지 합병 계획 -계열사 매각·분리 추진	-차장급 이상 연봉제 추진 -VC-1500운동: Value Creation (연간 1,500억 절감운동) -외부용역의 활성화